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⑦
(修習止觀坐禪法要)

복덕만 짓고 지혜 닦지 않으면 끝내 생사의 세계 못 벗어나

미친 지혜와 어리석은 복, 이 둘의 허물이 등
일하지 않으나 끝내 그 모두는 잘못된 복과 지
혜를 끝까지 다 사용한다 해도 생사에서 벗어
난 대해탈인은 되지 못한다. 모두가 생사윤회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일 뿐인 것이다.
지관수행이 평등하지 못하고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은 빠짐없이
원융한 중도를 이룬다 위없는 극치의 깨달음
을 얻고자 해도 끝내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령 열부수행을 할 때 입으로만 아미타부처
님 명호를 외우고 마음속으로 망상을 잡재우지
못한다면 이는 관수행만 있을 뿐 지수행이 없
으므로 지혜만 있고 그를 뒷받침할 선정이 없
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망념은 없으나 그 마음
이 애매모호하게 어둡다면 이는 지수행만 있을
뿐 관수행이 전혀 없어 선정만 있고 지혜는 없
게 된다. 이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열부수행
을 한다면 결국 깨달음의 이익을 얻기 어렵
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정과 지혜가 원융하고
마음과 행위가 합일한 상태에서 일념으로 열부
해야만 정토업을 신속하게 이루고 극락구품연
대에 높게 오를 수 있고 끝내는 아미타부처님
을 친견하고 위없는 보리과를 증득할 수 있다.

故經云 聲聞之人定力多故 不見佛性
이 문단에서도 경전에서 인용하여 지관을
쌍으로 운행하는 것이 절실히 중요함을 밝히
고 있다. 위의 문단에서 수행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선정 쪽으로
만 치우친다면 지혜가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지혜 쪽으로만 뉘는다면 미친 지혜
로 타락한다 하였다.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지
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관이 균등해
야 하고 정혜가 원융해야만 한다고 거듭 경전
에서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문'은 부처님이 사제(四諦)설법하는 음성
교화를 직접 들어야만 도를 깨닫는 자란 의미
이다. 이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소승인이다.
성문은 유훈 버리고 공을 관할하는 것으로

깨달음의 극치를 삼는다. 일체 현상제법은 그
자체가 공적하여 끝내 그 실체를 얻지 못한다
는 것을 알고 현실 유훈을 떠난 밖에서 따로의 공
에 집착하여 고정(固定)에 치우치므로 진공묘
유(眞空妙有)에 대한 중도지혜관과 결손된
다. 때문에 공과 유가 들어 아닌 중도불성의 이
치를 보지 못한다.
十住菩薩智慧力多 雖見佛性而不了
불성은 공에 막히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유
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공과 유의 이변에 떨어
지지 않고 역시 이변을 떠난 따로의 중도모습도
아니다. '십주보살(十住菩薩)'은 성문인과는 반
대로 선정의 힘은 부족하고 지혜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들은 본질인 공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
가유(假有)로 나와 중도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한쪽에 치우친 수행, 중도의 이치 못봐 반드시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뚜렷해야

처음 발심주(發心住)에서 불퇴위인 제철주에 이
르러 삼계견사혹(三界見思惑)을 끊고 다시 제팔
주에서 제십주에 이르러서 진사혹(塵沙惑)을 수
행해서 깨달음 분야만큼 타파한다. 그러므로 진
제의 공에서 다시 속제인 현실 가유로 나와 중
도불성의 이치를 비량으로 흡사하게 이해하긴
하나 그 이치를 명료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그
경지는 마치 비단으로 눈을 가리고 밝은 달을
겨우 희미하게 보는 것과도 같다 한다.
諸佛如來定慧力等 是故了見於佛性
유훈 오래만이 비공비유(非空非有)의 이치
를 명료하게 통달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즉공
즉유(即空即有) 할 수 있어 공과 유훈 쌍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이를 동시에 쌍으로 긍정하

總說 5 故經云 若偏修禪定福德 不學智慧 名之曰愚 偏學智慧 不修禪定福德 名之曰狂 狂愚之過 雖小不
同 邪見輪轉 蓋無差別 若不均等 此則行而圓備 何能疾登極果
여기에서는 지관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수행할 경우 그 폐단에 대해서 경전에서 인용
하여 증명하고 있다. 수행인이 선정에 의한 복덕을 오로지 유위법으로만 짓고 지혜를 배
우지 않는다면 끝내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에서 술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
다. 이와는 반대로 지혜 쪽으로만 치우치게 배운다면 이를 두고 복만 있고 지혜
가 없는 어리석은 복이라고 한다. 예를 든다면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통달하여 세간의 지혜와 번재가 특출하게 뛰어난 인재라 해도 일생
을 가난하고 괴롭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미친 지혜만 있고 복은
없기 때문이다.

는 묘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경지는 공과 유
가 들어 아니고 정혜가 평등하여 이변이 상대
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변을 떠난 따로의 중
도도 안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부처님은 명료
하게 중도불성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육도세계의 범부는 현상 유에 집착하고, 성
문은 현실 유훈을 떠난 따로의 공에 집착하고, 보
살은 제도 받은 중생과 제도하는 자신이 있다
는 이변업(二邊業)에 집착한다.
그들 모두는 방향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결과적으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부처님만은 공과 유훈 동시에 떠
난 상태에서 다시 즉공즉유하며, 이변을 버린
중도마저 멀리하여 오직 원융한 중도묘관
으로 불성의 이치를 철저히 관조한다. 그 경
지는 공도 유도 중도도 아니지만 공과 유와 중

도가 따로 분리하지 않고 바로 상즉관계를 이
룬다.[비공비유비중도 즉공즉유중도非空非
有非中道 即空即有中道]
이는 일체 현실의 차별상을 떠난 상태에서 다
시 일체법과 상즉관계로서 상즉을 떠났지만 상
즉 아남까지도 떠나 바로 상즉인 상태에서 즉시
상즉의 모습도 아니다. [이즉이비 시즉비즉離
即離非 非即非即]때문에 중도불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여래의 선정과 삼매는 무엇
을 통해서 증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
닌 지관을 수행함으로써만 성취된다. 지는 선정
이고 관은 지혜이다. 정혜를 원융하게 이루고
지관을 평등하게 수행하여 고요와 관조가 들어
아니고[적조불이(寂照不二)]지혜광명과 마음
의 고요가 하나의 자체[명정일체(明靜一體)]라

야만 여래의 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행만이 없게 된다.
옛날 큰스님은 말하기를 "마음이 고요한 가
운데 뚜렷하면 옳고[적적성성시(寂寂惺惺是)]
고요한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틀린 것
이다[적적무기비(寂寂無記非)]" 라고 하였다.
이처럼 마음이 뚜렷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관수행만 있고 지수행이 없게 되므로 [유관무
지(有觀無止)] 지혜만 있고 선정은 없게 되며,
반대로 고요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지수행만
있고 관수행은 없게 되어[유지무관(有止無觀)]
선정만 있고 지혜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행을 한다
면 끝내 선정과 지혜에 있어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중도불성의 이치를 보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항상 고요한 가운
데 항상 뚜렷해야만 한다. [상적적이상성성(常
寂寂而常惺惺)] 고요할 땐 마음에 조금도 흐릿
함이 없이 분명해야만 하는데 이는 마음이 고
요한 상태에서 분명히 관조하는 모습이다. [즉
적이조(即寂而照)] 또 항상 뚜렷한 상태에서
항상 고요하여 분명하게 관조하면서도 일념
상도 일어나지 않고 바로 관조하면서 그 자리
에서 고요해야만 한다. [즉조이적(即照而寂)]
따라서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서 항상 분명함
은 즉지이관(止而觀)이고 항상 분명한 상태
에서 항상 고요함은 즉관이지(觀而止)다.
이를 두고 마다 분명함과 고요함이 들어
아니며[성적불이(惺寂不二)] 지와 관이 일어함
이라 하는데[지관일여(止觀一如)], 이처럼 지
관을 쌍으로 운행해야만 진실한 지관수행이고
그에 따른 정혜도 원융함이라고 한다.
일념방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항상 뚜
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한 생각 망상도 일으키
지 않아야만 선정과 지혜가 이를 따라 일어나
며 지혜의 밝음과 마음의 고요가 동시에 환하
게 발현한다. 이것이 지관수행의 요제이다.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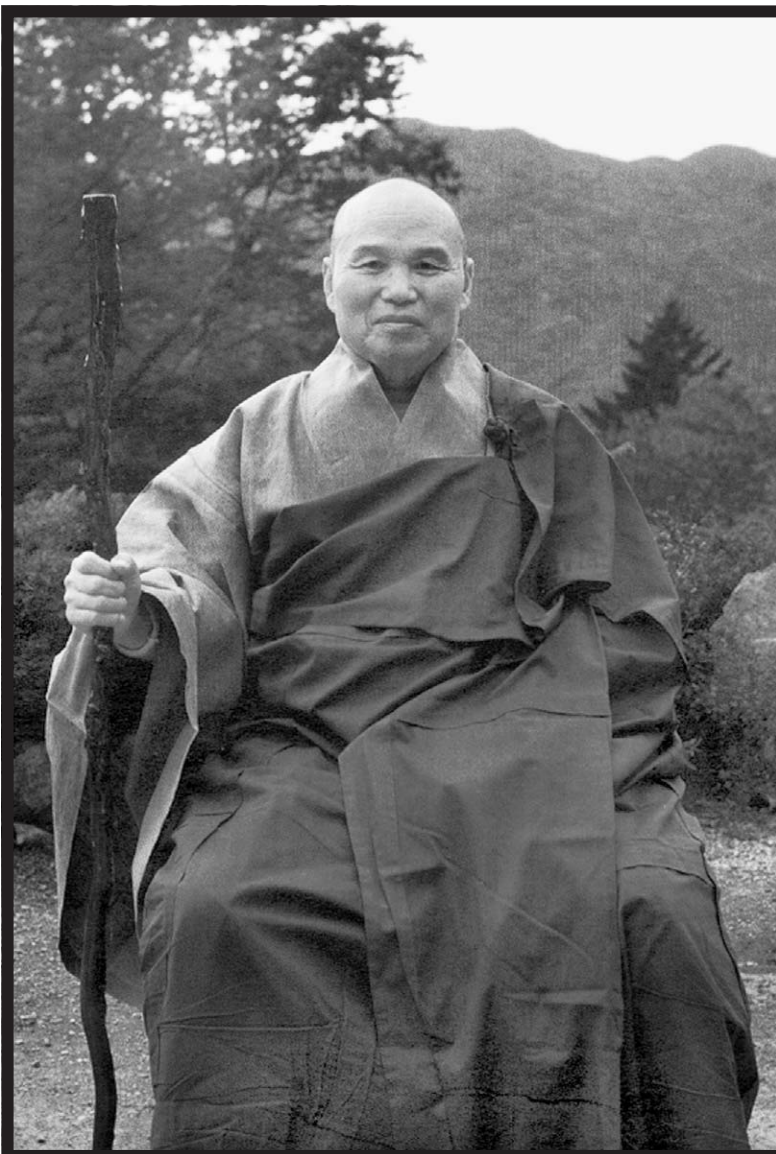
모든 업의 원인인 미혹(惑)

우리는 모든 행위의 업이 원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괴로움이라는 현실적 결과를 받고 있
다는 사실을 인과의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들 모든 업의 행
위는 무엇이 그 원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도대체 모든 윤회의 업은 그 무엇이 원인이
고 또 어떤 도리를 의지해서 이처럼 한량없는 행
위를 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빈틈없는 괴로움의
괴로움 빠뜨림 없이 부르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길 "중생들
의 모든 행위는 무명번뇌(無明煩惱)를 따라서 일
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생들의 모든 업은 무명번뇌, 즉
'혹(惑)'이 그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한데 이
를 무엇 때문에 '혹'이라 하는가. 그것은 다음

무명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자체 생사의 인과가 상속하는 모습

이 아니라 현상사물과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
본 이치, 모든 이사(理事)에 무명으로 미혹하여
잘못 분별하고 집착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
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윤회들은 사람과 이치의 실
체적 근원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듯 저렇듯 불안해하면서 순간순간 의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무명번뇌
를 일으키는 근본자체입니다.
따라서 '혹'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근본이자
모든 업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혹'과 '업'이 다
시 한 덩어리의 원인을 이루어 그에 따른 괴로움
의 과보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
서 말하는 '혹업고인과상속설(惑業苦因果相續
說)'입니다.
중생들의 한량없는 생사윤회의 모습은 모두
'혹업'이 원인이 되고 '고'가 그 과보가 되는, 즉
인과상속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같
은 '혹업고'의 상속순환을 두고 '생사윤회'라
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업을 일으키는 번뇌의 성질을 규
명해 보면 그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당연히 그 성질은 고요히 안정된 확신의 상
태가 아니며, 따라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혼란시
키고 압박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지적하여 이를 총
체적으로 요약해서 '번뇌'라고 말합니다. [성불
정적 너란자타(性不寂靜 惱亂自他)].

■정리=張如舟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철 대종사 열반 14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2007년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 해방 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고 모인 봉암사 결사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 생전의 그 큰 가르침은 세월이 더할수록 마음의 눈을 닦아가려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요 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는 올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 고 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 동안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천배가 못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모두 동참하시어 이 땅이 불국토의 자비와 복덕이 두루 넘치기를 바랍니다.

- 첫날(10월 23일) 마음이 불행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 세상 곳곳에 마음이 불행하고 몸이 아픈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입니다.
- 둘째날(10월 24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어둠과 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부처님처럼, 소외받는 이웃에게 작은 마음을 바치고자 합니다.
- 셋째날(10월 25일) 자유와 권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의 자유와 권리는 생명에 있는 존재가 누려야 할 최상의 선입니다.
- 넷째날(10월 26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기도
-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다섯째날(10월 27일) 복병 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 이념의 벽,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 여섯째날(10월 28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
- 나는 세,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 할 것 없이 자연의 온갖 생명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 일곱째날(10월 29일) 영원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
- 팔만 사천 번뇌를 훌훌 털고 영원한 행복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 칠일칠야 참회법회 안내 】

- ▶ 입 제 | 2007년 10월 23일(음 9월 13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 회 향 | 2007년 10월 30일(음 9월 20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 3천배 참회기도 | 2007년 10월 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큰스님 사리탑
- ▶ 추 모 재 | 2007년 10월 3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
※정년당에서는 칠일칠야 동안 참선정진을 합니다.
- ▶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천 배씩 이어집니다.
- ▶ 준 비 물 | 상하 법복(고름 있는 것),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 ▶ 동참방법 | 1인 5만원, 농협 843174-51-013873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 ▶ 문의전화 | 백련암 (055)932-7300, 고심정사(051)464-0068~9, 장경각(02)2198-5372
※부산 매일 관광버스 운행 · 출발 | 오전 6시 30분 중앙동 고심정사 앞 · 백련암 출발 | 오후 4시